

양산초 주경서 체조 5관왕 “야호”

전남 5위 향해 질주...광주는 부진
보성여중 최다혜 역도 3관왕 영예

2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남초 평행봉 경기에서 주경서(광주 양산초 6년)가 금빛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폐막을 하루 앞둔 제37회 소년체육대회 3일째 경기에서 광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전남은 목표인 종합 7위를 넘어 종합 5~6위 달성을 위한 숨가쁜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는 2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체조 남초 주경서(양산초 6년)가 마루와 안마, 평행봉, 철봉에서 금빛 연기를 펼쳐며 4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해 개인종합에 이어 5관왕에 올라 힘을 불어 넣었다.
양궁에서 남초 단체종합 금메달, 태권도 남중 라이트 헤비급 한태인(문성중 3년)이 금빛 발차기를 성공시켜 금메달을 추가했지만 순위 상승을 위한 더 이상의 금메달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기대했던 레슬링에서 동메달 3개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해 아

쉬움을 남겼다.
전남은 여중 역도 최다혜(보성여중 3년)가 53kg급에서 인상 63kg, 용상 81kg, 합계 144kg를 들어올려 1일 이한송(보성중 3년)에 이어 3관왕에 올라 전남의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역도가 힘을 내자 태권도 여중 라이트헤비급 조우주(전남체육중 3년)가 금을 보냈고, 레슬링 남중 김중진(전남체육중 3년)도 자유형 58kg급에서 역시 금을 추가했다. 성진수(전남체육중 3년)도 근대 3종 개인전에서 3천328점을 획득,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은 마지막 날인 3일 축구 광양제철중과 정구 남초·여초,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종합 5위 달성을 목표로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광주는 2일 현재 금 13개, 은 11개, 동 28개, 전남은 금 25개, 은 16개, 동 37개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히어로 ..... 체조 주경서
“아버지 뒤이어 꼭 국가대표 될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습니다.”
2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초 초등부 체조 경기에서 금메달 4개를 싹쓸이하며 5관왕에 오른 주경서(광주 양산초 6년)군은 아버지가 못다 이룬 올림픽 메달에 대한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어른스러운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체조에 입문한 주군은 체조에 적합한 체형으로 유연성이 뛰어나 일찌감치 체조 꿈나무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는 은메달 2개에 머문 주군은 지난 겨울 충실한 동계훈련을 통해 부족한 근력을 보강해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군의 이처럼 뛰어난 실력의 배경에는 아버지 주광성 광주 체조협회 전무이사



어머니 정애리 광주체고 여자부 체조 코치의 영향이 컸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체조에 대한 분위기를 익혔고, 국가대표를 지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월등한 신체조건을 물려받았다. 동생 윤서(양산초 3년)도 체조 선수로 가족 모두가 체조인이다.
철봉과 안마가 주종목인 주군은 차분하고 경기장에서 초등학생 답지않은 대담한 경기운영으로 주변을 놀라게 해 팔만 키우면 올림픽 메달도 가능하다는 체조계의 평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일 광주시 서구 염주양공장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경기에서 중등부 시·도 출전선수들이 힘차게 시위를 당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늘나라 아빠께 금메달 바쳐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금메달을 따내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 선수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태권도 남초 고혁재(순천북초 6년)·고호재(순천북초 6년)쌍둥이 형제. 이들은 지난 1일 태권도 남초 라이트미들급과 웰터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년체전 사상 첫 쌍둥이 형제의 금메달이었다. 이들의 메달이 더욱 값진 것은 한 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출가한 3명의 누나들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일군 금이기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인 고혁재군이 호재군보다 8분 먼저 세상에 나왔고, 키도 조금 더 크다. 초등학교 3학년때 나란히 태권도에 입문해 올 전국품나무대회와 전남도지사기에서 각각 우승하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고혁재(오른쪽)·호재 쌍둥이 형제>

이들의 꿈은 열심히 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이다. 이번대회 역도 3관왕에 오른 이한송(보성중 3년)군도

역도 이한송, 태권도 고혁재·호재, 씨름 이 건
홀어머니와 어려운 생활 딛고 전국 최고로 무뎠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어머니와 생활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에 전념. 지난 1일 남중 역도 94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랐다.
지난 1일 씨름 무제한급 인장사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 건(관산초 5년)군은 초등학교 2년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세상을 뜨고 같이 살던 할머니, 누나도 경기도 안양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겨 혼자 지내면서 금메달을 따냈다. 평일에는 인근 중학교에서 합숙을 하고, 주말에는 황종훈 코치 집에서 기거하면서 꼭 “씨름으로 성공하겠다”는 신념으로 만든 금메달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선화 LPGA 긴트리뷰트 우승



이선화가 2일(한국시간) 올시즌 LPGA에서 한국선수로는 처음 긴트리뷰트 최종 라운드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연장서 카리 웹 제쳐

개인통산 3승...한국남자 10개월만에 낭보

‘돌부처’ 이선화(22·CJ)가 1년동안 이어진 한국선수 무승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선화는 2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리버타운 골프장(파 72·6천45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긴트리뷰트 최종 라운드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선두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에 9타나 뒤진 채 경기에서 나선 이선화는 5언더파 67타를 때려 카리 웹(호주)과 함께 공동 1위(14언더파 274타)로 올라섰고 18번홀(파 4)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파를 지켜내 3퍼트 보기를 적어낸 웹을 제쳤다.
시즌 첫 우승이자 개인 통산 3승자인 이선화는 특히 지난해 7월 HSBC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이후 27개 대회가 치러진 동안 나오지 않았던 한국 선수 챔피언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 39만 달러를 받은 이선화는 상금랭킹 4위(65만6천달러)로 뛰어 올랐다.
3타를 줄인 김승희(20·힐라코리아)는 1타가 모자란 13언더파 275타로 연장전에 나가지 못했지만 3위를 차지해 시즌 네번째 ‘톱10’ 입상과 함께 상금랭킹 7위(50만9천달러)로 도약, 내년 시즌 투어 카드 걱정은 완전히 잡았다.
이브라 제인 박(21)이 공동4위(11언더파 277타)에 오른 가운데 2001년 한희원(30·힐라코리아)에 이어 조건부 출전권자 출신 신인왕을 향해 뛰고 있는 최나연은 공동 6위(10언더파 278타)를 차지하며 신인왕 레이스 1위를 굳게 지켰다. 박세리(31)는 공동 9위(9언더파 279타)에 올라 시즌 처음 ‘톱10’에 입상했다.

양희영 프로 첫 승

유럽여자프로골프 독일오픈

양희영(19·삼성전자)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일궈냈다.

양희영은 지난 1일 독일 뮌헨의 구트호이제른 골프장에서 열린 독일여자오픈 마지막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2위 루이제 스탈레(스웨덴·17언더파)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또한 위성미(19·미국)를 미셀 위)도 14언더파 274타로 6위에 올라 최근 부진에서 탈출을 예고했다.

‘한국승마 기동’ 최준상 베이징행

20년만에 마장마술 올림픽 티켓 확보

‘한국승마 마장마술의 대들보’ 광주 출신 최준상(30·삼성전자승마단·사진)이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 마장마술의 올림픽 출전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대한승마협회는 2일 “최준상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독일 링겐에서 개최된 국제승마대회에서 65%의 점수를 획득, 베이징올림픽 본선 출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올림픽 본선 출전 자격요건은 64% 이상이다.
한국 마장마술이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는 것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서정균이 출전해 개인전 10위를 차지했다.

최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독일전지훈련을 겸해 대회에 참가하며 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를 쌓아왔고, 지난달 1일 올림픽 개인 자격 진출전(G그룹)에서 863점을 얻어 뉴질랜드의 리사 화이트(785점)를 제치고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대표가 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승마에 입문한 최준상은 무진중학교 1학년 시절 영국 유학길에 올라 정통 승마수업을 받은 ‘승마 엘리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